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3번(오전 9시, 11시, 오후 2시30분)으로 나누어 드리며, 예배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후에 부활절 선물을 가져가십니다.
- 하나님께서 연속기도 중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주시기 원합니다.
- 내일(5일)은 공동체학교 개교 29주년 기념일입니다. 모든 학교는 휴업합니다.
- 하나님께서 한누리(김영명) 성도 가정에 29일(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부활절 감사)
권재만 목사 · 차태옥 사모 가정 (부활절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4 호

2021년 4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

굳이 세상 소식들을 뒤적이며 고통의 현장을 찾지 않아도 오늘날의 삶은 그리 마음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신경 쓸 일이 많으며 일은 도통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공들이려는 일들은 시작도 못하고 늘 급한 일에 쫓겨 매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기의 발달은 퇴근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대개 감기증상으로 쉬어야 함을 알립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분주히 달리다 갑자기 몸이 망가져 억지로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셔서 일요일마다 쉼을 가집니다. 나만이 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소유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쉴지라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요일을 쉬지 않고 이날마저 무엇인가 분주히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도 종종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매일 역동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나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초기지가 있어 그곳에서 매번 보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혹은 스스로를 정신교육시켜 현실이 그렇다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10년 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 또 하나의 영화가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 이태석 신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선교와 섬김

합니다. 또 한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내 친구 정일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철거촌과 함께 산 정일우 신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다 간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강력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비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톱니바퀴를 멈추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드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놀라운 능력은 보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다 실패한 약속의 민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을 드려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참 진리와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약자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이기적인 강자들을 회개하게 만들어 정의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 중에 이러한 부활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만할 때에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의심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루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일우 신부와 이태석 신부 또한 그 길을 배우고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걸었기에 오늘날 많은 자들에게 그 부활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부활의 현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울지마 톤즈”, “부활”, “내 친구 정일우”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주초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마지막 영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
< 누가복음 24장 5b-26a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14장 32절-52절
제목 : 수난 전, 예수님의 기도
인도 : 정재훈 전도사
찬송 : 146 144 149 150 154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32절~42절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43절~52절 <예수께서 붙잡히시다>

2. 내용의 의미(Why)

예수께서는 큰일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오천 명을 먹이신 후, 그리고 수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첫 시작인 광야에서의 시험도 금식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깨어 있기를 위해 기도하자.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②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새 생명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활이 시작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많고 많은 죄수들 중 하나로 잊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네 복음서를 갖고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세계 도처에 그분을 믿는 이들이 있고 또한 교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의 선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 교인들이 선전한 그대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초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초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제자들의 돌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었을 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질문에 겁을 먹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두 달도 안 되어 돌변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홀로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주고 도망갔던 그들이, 오십여일 만에 스스로를 가뒀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전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그들의 선전이 유대교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위협하고 박해 하였을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전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현상을 오늘 우리의 이성 혹은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연결 고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성경의 모든 기적 중에서 부활만이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봉목사. [나는 왜 믿는가]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1 : 25b-26 인도자
16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16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24 : 1 - 12 설교자
165 사랑방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정태일목사
< 성 찬 식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창수 정혜욱 / 봉헌위원 : 정혜욱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치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공동기도문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 땅에 널리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의 결론적인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내용의 기록에서는 서로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의 약한 면에 관심이 많고,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마치 한 장의 그림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으나 돌문은 열려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6>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사도들은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11>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누가는 한없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림 같은 이야기로 풀어줍니다.<눅24>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배신,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은 신실한 믿음과 용기, 죽음을 극복한 생명력을 보이는 강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한 인간을 생명력이 강한 인간과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십시오.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생존했던 많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있었고<고전15:6> 기독교의 존재(역사) 자체가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시작하였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영화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추위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귀여운 새싹과 예쁜 꽃들은 꾸러기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호기심을 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 떠있어서도 나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는 감사하게도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활동을 했습니다. 꾸러기 모두가 예수님이 되어보았습니다. 실제와 같은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이 요한으로 변장도 하고, 모래사장에 요단강도 만들었습니다. 씩씩하게 하는 친구, 발이 시려서 땅만 보는 친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멋지게 잘해냈습니다.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에 꾸러기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뒷산에 숨겨진 도롱뇽알이 있는 웅덩이입니다. 험한 길을 씩씩하게 지나서 웅덩이에 도착하니 투명하고 길게 생겼는데 여러 점들이 박혀있는 도롱뇽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올챙이들과 소금쟁이 등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갔는데 살아있는 생태계를 보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도롱뇽의 성장한 사진과 영상설명을 더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도시락을 싸서 귀여운 산양이 있는 모심농장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한호남집사님이 꾸러기들이 온다고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입구까지 나와 맞아주셨습니다. 꾸러기들이 예쁘다고 친절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먹이도 먹이게 해주시고, 산양에 대해 쉽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산양 만나 신난 꾸러기들이 집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진달래 목련 제비꽃 아름드리 피었습니다.

학교 여기저기에서 냉이도 캐고 쑥을 뜯는 모습이 많이 보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냉이국과 쑥전을 만들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참 맛나게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하고 깡통차기를 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봄이 이렇게 무르익어 갑니다.

성서일기 시간엔 모르는 찬양을 한 곡 골라 녹음을 해서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엔 교실 청소와 학교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4월 5일(월)은 개교 기념일입니다.

4월 6일(화)은 구충제 복용을 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기다리고 기다리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조용한 사랑방공동체 마당가운 학생들의 웃음이 넘칩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요구에 따라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등교했습니다. 멋쟁이들은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연속적으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불평불만 없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해서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서 멋쟁이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신앙실천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2주 동안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멋쟁이들은 부모님의 수고와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공동체 학교 개교기념일이라서 하루 집에서 쉬게 됩니다. 이런 복된 날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폭 쉬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 교사 : 해 은 >

생각나는 것들

2021년 우리 가정은 모든게 새롭게 시작된 한 해다

나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꾸러기학교를 그만두고, 취업해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예찬이는 멋쟁이학교 졸업 후 청주대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사람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일을 하는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동생들과 함께 지내시던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덤덤하고 새로운 삶이 더는 새롭지 않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 같기도 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한 직장생활은 일주일도 안 되어 긴장이 해제된 상태가 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만 빼고 나름 편안하고 쾌적하다.

예찬이는 늘 그렇듯이 무덤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멋쟁이 졸업생답게 적응도 잘하고 있는 듯하고, 어머니는 계신 듯 안 계신 듯 뜨개질에 열중하시면서 나름 다분한 포천 생활에 적응하고 계신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부활절 찬양잔치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힘들지만(노래를 못해서), 그래도 방 식구들과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며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던 때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익숙치 않은 상황에선 성격 그대로 몸을 낮추고 관망하는 처지여서 불편함은 여전히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온다는 찬송가 구절이 생각 난다.

캄캄해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처럼, 사랑방공동체의 화려한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루터기사랑방 정낙귀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전도서 12장 9-14절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교문을 포함한 정부 인사를 감금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에 맞서 민주화 시위대를 군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속출하다가 지난 28일 100여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이날 현재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집계한 총 사망자는 510명이며, 구금된 시민은 2천574명에 달한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마을 공동체 의성/보은>

1) 선교사님 숙소를 위한 모금이 잘 이루어지도록

2)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3) 의성과 보은 공동체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더욱 가까워지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사순절 연속기도, 목요 세족 예배, 부활절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도록

2) 건강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3) 출산한 가정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받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목요일에는 목요세족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 금요일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멋쟁이 학생들은 고난 주간 동안 오전 금식을 했습니다. 순수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신앙경험은 앞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평생 기억되는 믿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주말이 되어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승리의 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